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피할 수 있는 바위

(시편 31:1-24)

시편 31편은 사울의 박해로 인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공로자입니다. 나라가 풍전동화와 같을 때 소년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질투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13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빌렸습니다. 그리고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의 말씀은 물고기 벵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요나서에서 찾아집니다(요 2:8). 이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눅 23:46)

1. 고난 중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1절).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31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피할 바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나의 반석과 산성’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고 2절에서는 ‘내게 견고한 바위가 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비논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입니다. 시인은 고백과 기원을 함께 한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소서”(3절).

시인이 하나님께 자기를 속히 구해달라고 간구한 까닭은 하나님은 박해받는 성도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악인의 포악을 꺾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이 곧 여호와와 공의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5절). 다윗은 거짓된 신을 배격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에게 피해 있었습니다.

2. 하나님을 의뢰하는 표현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6절).

고난 중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 환난 중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영혼의 고통을 아셨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아시는 분이시며 앓고 일어서는 것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며 집 나간 망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니다.

피할 길이 없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현재도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나이다”(8절).

하나님은 다윗을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과거에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신실하신 분으로 오십니다. 과거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다윗의 기억은 현재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3. 슬퍼하며 탄식하는 모습

9-13절에는 시인이 슬픔으로 가득 차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30편에는 시인에게 육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본 편에서는 영적인 고통이 더한 것 같습니다. 병들어 슬픈 것보다는 선이 악에게 쫓겨 다니는 안타까움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13절).

세상에서 참기 어려운 것은 억울한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 하는 일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11절).

다윗은 이스라엘 내부 뿐 아니라 밖으로도 원수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때에는 모두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모두 상실했을 경우 사람들은 우리를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불안정한 위치와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빠졌고 뼈와 눈은 약해졌고 몸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9-10절). 이런 말들은 시적인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현된 고통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약해졌고 슬픔이 가득하고 탄식으로 자신의 연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며 집 나간 망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담당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집사 및 권사 선출 위한 공동의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9대 집사와 8대 권사 선출 건을 다루기 위한 공동의회가 열린다.

오늘 공동의회에서는 지난 14일 제직회 투표에서 순서가 정해진 당회 추천 집사후보 124명과 권사후보 95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 중 종다수로 집사와 권사 각 70명씩 선출하게 된다.

투표는 1차에 한하며 지난 제직회에서와 같이 OMR 용지로 투표하는 전산투표를 실시한다. 특별히 유의할 것은 추천된 후보 중 누구든 선택하되 70명

을 넘게 기표하거나 투표용지 좌측 상단의 집사 권사 기표란에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헌법 88조1항에 의거 서울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누구나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오늘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 바란다.

딤편 3장 8-13절에 해당하는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제14차 KIMCHI 신학세미나 2006 흥해작전 임박

오늘 주일예배 시간에 KIMCHI 세미나 위한 선교헌금 드려

제14차 KIMCHI 신학세미나와 2006 흥해작전이 임박하였다.

동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동아시아 교계지도자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제14차 KIMCHI 신학세미나 개최와 국가와 교회 가정의 흥해를 말씀과 기도로 건너는 2006 흥해작전이 개전된다.

이에 따라 KIMCHI신학세미나 준비위원회와 2006 흥해작전 준비위원회는 매주일 기도모임을 갖고 준비위원을 소집하여 제반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특별히 오늘 주일예배 시간에는 이번 김치신학세미나 지원을 위해 우리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선교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받고 돌아가 자국복음화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입국예정인 동아시아 교계지도자들의 출입국수속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한편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 따른 국가안보문제, 교회와 가정의 흥해를 말씀과 기도로 건너는 흥해작전에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참석하기 바란다.

김치신학세미나는 6월5일(월)부터 14일(수)까지 10일간, 흥해작전은 6월6일(화)부터 25일(주)까지 20일간 계속된다.

우리교회 지자체 투표장소로 개방돼

5월31일(수) 하루 동안 1층 개방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교회를 지향하는 우리교회는 5월31일(수)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우리교회 1층을 투표장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투표 장소는 102호실(도서실)과 1층화장실이 합

께 개방된다. 성도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5.31지방선거가 은혜 중에 치러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교회로 기억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디아스포라부 교사로 봉사할 성도 기다려

디아스포라부는 복음이 메마른 곳,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사회에서 진정한 자유와 신앙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시아나라들을 걸쳐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동포들이 모여 성경공부를 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육 제3국에 속해있는 공동체로 우리 서울교회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의 손길아래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 중인 탈북동포들이 우

리 서울교회를 찾아오고 있다. 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정착시키고 예수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들이 필요하다. 디아스포라부에서 교사로 봉사해주실 성도들은 서울교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당회가 적임자를 임명한다.

사랑부 1일 세미나 열어

오늘 오후 1시 102호에서

사랑부는 오늘 오후 1시 102호에서 나자로의 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박민정 원장을 모시고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바란다.

KIMCHI 세미나 위한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기증품은 사무국에 접수

우리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지하 3층에 마련한 나눔의 집이 이번 김치세미나 기간 중에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개장된다.

그러나 현재 나눔의 집에 기증된 기증품의 수량이 적어 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의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교회에 기증해주시면 나눔의 집에서 필요한 이들에게 한 점당 1000원에 판매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접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여름철 예배당 청결하게 관리합시다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음식물의 부패와 해충의 번식이 우려된다. 교회는 성도들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식당을 제외한 모든 방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있다. 성도들의 협조로 하나님의 집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당부한다.

금주의 성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he will speak only what he hears, and he will tell you what is yet to come.

(John 16:13 {NIV})

김치 신학세미나에 대해 알아보시다

1. 김치 신학세미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받은 현지의 언어와 관습 등을 잘 알아 능숙하게 선교활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지인이 선교활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노력과 시간은 엄청나게 절약되고 효과도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우리교회는 해마다 다른 문화권의 목회자(교계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재훈련하여 고국에서 선교활동을 펼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받아 서울교회에 온 교계지도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관찰하고 체험하여 자국복음화에 기여하게 되는 한편 한국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 교회와 깊은 교제를 하며 다른 나라 교회의 긍정적인 면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교회 내에서 선교의 비전이 확대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최선의 선교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끝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성장과 갱신의 비전을 심게 됩니다. 참고로 김치 신학세미나는 1996년에 세계 로잔위원회(ARC)의 공인을 받은 기구입니다.

2. 김치 세미나란 이름과 로고가 참 특이한데 이름과 로고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김치(KIMCHI)는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고유의 음식인 김치처럼 전 세계 교회의 잃어버린 영적인 입맛을 돋우어 주자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로고는 서울교회 로고인 물고기 옆에 지구본과 펼쳐진 성경책이 붙어있습니다. 먼저 교회마크인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를 상징해왔습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 구주의 첫 글자를 모으면 물고기가 됩니다. 이는 우리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한 사도적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삼위일체 십자가를 한복판



에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으로 물고기의 꼬리는 세상을 향해 퍼져 있습니다. 교회의 상징색인 푸른색(sky blue)은 믿음과 사랑에 소망을 품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교회 로고 옆에 붙어있는 지구본과 펼쳐진 성경책은 우리교회가 또한 세계교회를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3. 올해로 14회 재인데 그동안 참가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나요?

- 1차-동구권(32명)-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 2차-중국어권(30명)-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미국 영국
- 3차-힌두교권(34명)-인도 스리랑카 불가리아 일본
- 4차-아프리카권(27명)-보츠와나 브룬디 카메룬 차드 에티오피아 가나 가봉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잠비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짐바브웨 남아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 5차-CIS(구소련, 25명)-러시아
- 6차-회교권(31명)-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7차-오세아니아권(28명)-호주 뉴질랜드 피지 사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8차-아시아(22명)-네팔 캄보디아 몽골

- 9차-아프리카권(불어권 16명)-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차드 콩고
- 10차-아시아 로잔대회(ALCOWE, 125명)-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 11차-미국(청교도신학세미나, 72명)-미국 한인 교역자
- 12차-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31명)-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일란드, 미얀마
- 13차-세계개혁 신학회 제6차 회의(100명)-네덜란드 미국 독일 영국 헝가리 호주 남아공화국 인도네시아 케냐 한국 등

4. 이번에 참가하는 동아시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번에 참가하는 동아시아 국가는 기독교를 핏박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명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5.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되나요?

우리는 오늘 '김치 세미나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이번 김치 세미나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안전하고 입국을 하실 수 있도록 깊은 기도가 필요하며 10일간 일정으로 국내에 머무는 동안 위하여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히 머무시며 식사하시고, 공부하고 토론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성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14차 김치세미나가 딱 1주일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면 이번 세미나도 큰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많이 거두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유태서 (편집부))

어머니를 기다리며

최미아 권사(5교구)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진 "어머니"라는 이름만은 변하지 않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하신 보고 싶은 어머니!

이때쯤이면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가신 어머니의 살 냄새가 그리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화통이 요란하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엄마 편찮으세요? 걱정되어 사흘이 멀다고 전화하며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서울에 다니러 오셔서 오랜만에 여기저기 구경하시면서 딸과 함께 한 달여 시간을 꿈같이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으로 기신지 몇 달 후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장례 준비까지 하고 오라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한결음에 L.A까지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는 딸 사위도 알아보지 못하고 벌써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보고만 있기에 답답하여 울면서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 했습니다. 온 식구가 모여 자기들이 잘못해서 어머니가 돌아 가시게 됐다고 회개가 터져나오며 그 동안 잘 하지 못했던 형제간의 사랑이 날로 뜨거워지며 계속적으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중 할렐루야! 어머니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산소호흡기를 빼고 병동으로 올라가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꺼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각자의 신앙상태를 점검하게 된, 주님께서 꼭 우리가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그래서 손으로 만져지는 확신을 어머니를 통해 주시려고 하셨던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어머니의 몫 마지막 헌신도 기다리셨던 것은 아니신지...

퇴원하시고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신 다며 그 동안 평생 하지 못하셨던 헌신을 힘을 다해 하시는 어머니모습은 평생 처음 보는 너무도 아름다운 어머니 풍경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국 딸 집에 오신 다기에 오늘도 하늘만 쳐다보고 어머니를 다시 살려주시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만민에게 전도-아시아 로잔대회보고

북한주민 구원을 위해 6월25일을 세계기도일로 선포

이종윤 목사 아시아 로잔위원회 의장 재선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아시아 로잔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 근교 라구나에 위치한 카리랴야 크리스찬 리크리에이션 센터(Re-Creation Center)에서 아시아 20개국 15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새 마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열렸다.

대회 첫날 이종윤 목사(아시아 로잔 의장)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레니스 폴리아싱가포르 감독, 데이빗 림(필리핀 신학교 교수), 켈 그나나칸(인도 ACTS 총장), 밤방 위자자(인도네시아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등의 성경연구와 테드 아마모리(로잔 국제총무), 조종남(전 서울신대 학장), 더그 버잘(로잔 국제위원회 의장)의 로잔운동의 비전과 세계복음화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조명했고, 조수아 오가와(일본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강승삼(한국세계선교 협의회 총무), 세칸 칼리안폴(인도 새생명 협회 총무) 등이 세

계복음화의 과업과 전략과 헌신에 대한 논문을 각각 발표하였다.

매일 오후에는 9개의 분과 토의에서 밥 로팻츠(필리핀 선교협의회 총무) 등의 발제자들이 타문화권 선교, 아동과 청년 선교, 세속화 된 세상 선교, 가난한 자 선교, 동성연애자 선교 등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의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로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북한주민 구원을 위한 세계기도일을 정하도록 국제 로잔 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마침 국제 로잔 위원회 의장 더그 버잘 목사와 국제 총무인 테드 아마모리 박사가 아시아 로잔 대회에 참여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전 조정을 거친바 있어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25일을 북한주민 구원을 위한 세계기도일로 5월25일 공식 선포하고 로잔 중보기도 릴레이에 기사화 하여 전 세계 교회지도자들에게 선포하였다.

마침 한국의 북한구원운동(대표회장 이종윤, 상임회장 김상철)에서는 오는 6월 19일(월)에 목회자 3,000 여명을 초청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서울교회당에 모여 북한의 신앙자유와 구원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열고 6월25일을 북한구원을 위한 세계기도일로 선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아시아 로잔 총회에서 이종윤 목사는 아시아 로잔 위원회 의장으로 재선되었다. 부회장에는 화영 말레이시아 감리교회 감독, 서기에는 일본 고베루터신학교 교수, 회계에는 립케이 탐 싱가포르 성서공회 총무가 각각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디아스포라영어교실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이 5월 28일(주일) 밤 11시 30분 MBC 스페셜- 대한민국영어보고서에서 방송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9일(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제20회 64년 합회 각부 부장 연수회에서 강연한다. 30일(화) 북한구원운동본부 목회자 기도회 준비모임, 해병대 사령관 취임예배 설교를 한다. 6월1일(목) 북한구원 운동세미나에서 개최설교, 2일(금) 총회주제위원회 모임을 소집한다.
- 전화번호 변경: 전용순 권사(9교구) 010-8326-2522
- 주간 식당 봉사: 엘리야 선교회(5월28일) 모세선교회(6월4일)
- 금주의 식사 제공: 김진환 집사 신자경 성도가장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만민에게 전도-사랑부

장애우를 통해 전도하시는 하나님

김상준 (사랑부 교사)

지난 주일 사랑부에서는 한티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장애우 부서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유롭게 야외로 나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 사랑부 학생들은 야외로 나갈 기회가 좀처럼 없기 때문에 한티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서울의 한복판 그것도 강남 대치동에 이토록 아름다운 공원을 서울교회에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마치 전원교회처럼 푸른 숲이 우리를 맞이 하니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는 먼저 주일 오전예배를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고, 2부 순서에서는 야외에서 빠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게임들로 진행되었습니다.

맛있는 사랑과 과자를 먹는 만나먹기 게임, 친구들과 협동해서 공을 전달하는 들이서 한마음 게임, 숨겨진 보물들을 찾는 보물찾기 게임,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적고 풍선에 매달아 하나님께 날려 보내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야외 예배에서 특이한 것은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다가 결국은 함께 식사까지 하고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헌금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장애우들의 모습을 통하여도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이 야외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야외예배 당일 오전, 교사들은 한티공원에 만국기를 매달고, 음향을 설치하며 아이들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 교사들의 모든 수고의 땀을 닦아 줍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였고, 예배는 그 어느 때 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의 입가에도 덩달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야외예배를 드렸으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기에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북한주민 구원을 위한 세계기도일(6월25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호산나 복지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3. 5.28 집사·권사 선출이 은혜롭게 되도록
4. 나라의 안녕과 5.31 지자체 선거를 위하여

■ 교회외시는 길

